

- [교회 표어] ·은혜충만 · 진리충만
 [교회 3대 목표] ·세계선교 적극화 · 일천교회 설립 · 전성도 성령충만
 [성도생활의 목표] ·전도와 봉사에 힘쓰자 · 모이기를 힘쓰자 · 성도다운 교양과 품위를 갖추자



은혜와진리교회 모바일 홈페이지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72차 정기총회 본교회에서 열려

조용목 목사님 설교...“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역설



본교단 제72차 정기총회가 지난 5월 15일(월) 1천여 명의 총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교회 안양성전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사도행전 13:20~23)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총회는 이날 우리 한반도와 급변하는 세계정세의 위기 상황에서 튼튼한 국가안보와 북한의 핵폐기를 통한 평화 정착과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 감염병 팬데믹으로 침체되었던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였다. 이와 함께 철두철미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우리 교단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한국교회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 무감각해진 종교 다원주의와 교회의 세속화 및 이단 사이비를 앞장서서 배격하고 성경대로의 신앙을 굳게 지키며 복음전파에 전진 전력 헌신할 것을 다짐하였다.

회의에 앞서 오후 1시 개최해 배가 교단 총무 정진국 목사님의 사회로 총회장 김병목 목사님의 인사말, 전임 경기북지방회장 한승수 목사님의 기도, 교단 재무

백영자 목사님의 성경봉독, 우리 교회 장로성가단의 은혜로운 찬양, 정책위원장인 당회장 조용목 목사님의 설교 순서로 드러졌다. 조용목 목사님은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한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제목의 설교로 말씀해 주시고 총회원들을 격려해 주셨다. 조 목사님은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와 율례 안에 거할 때 진정한 행복을 향유할 수 있다. 기록된 말씀에 하나님이 인生的 행보를 위해 정하신 제도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고 강조하시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밖으로 넘어간 사람들의 예와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아니한 사람들의 예를 들어 이를 자세히 교훈해 주셨다.

“우상을 배격하지 않으면서 한편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드린 자들을 하나님이 기증하여 기셨습니다. 어찌하여 율법과 예언을 받은 이스라엘이 이런 행위를 하였습니까? 어찌하여 오늘날 소위 성직자와 신자들이 이런 행위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신반의하기 때문입니다. 탐심 때문입니다. 교만 때문입니다. ‘설마’라는 자기

중심의 해석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가를 항상 살펴야 합니다. 인생의 성공자와 승리자와 행복자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명예로운 칭호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이며 선물이요 상급입니다.”

조 목사님의 설교말씀에 총회원들은 충심으로 공감하며 사명감으로 종만하여졌다.(설교 동영상 -본교회 홈페이지)

이어진 특별기도 순서에서 전임 총회장 신재영 목사님과 김포지방회장 이득상 목사님이 각각 ‘교회와 나라를 위해’, ‘성령충만

한 사역을 위해’ 기도하였다. 계속해서 일본하나님의성회 이사장 츠치야키오시 목사님이 축사에서 지난 3월 우리 교단과 일본 교단 간에 맺은 선교협정에 따른 기대를 말씀하며 본교단 총회를 축하하고, 한국에 올 때마다 배려와 격려를 해주신 조 목사님과 우리 교회에 감사의 뜻을 전하셨다.

이어서 30년을 한결같이 목회 사역에 전념해 온 목사님들에게 근속패가 수여되었고,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용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회의에서는 목사고시 합격자에 대한 인준, 기관 업무 보고, 감사위원회와 예산위원회 관련 심의는 하나님에 주시는 명예이며 선물이요 상급입니다.”

조 목사님의 설교말씀에 총회원들은 충심으로 공감하며 사명감으로 종만하여졌다.(설교 동영상 -본교회 홈페이지)

이어진 특별기도 순서에서 전임 총회장 신재영 목사님과 김포지방회장 이득상 목사님이 각각 ‘교회와 나라를 위해’, ‘성령충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은혜와 진리교회

-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 031-443-3731 ~ 2, 446-9184
수원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3 T. 031-225-3731, 234-3732
안산 : 안산시 회랑로 303 (고잔동) T. 031-486-3731~2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 02-502-3731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인길 20-1 (신천동) T. 031-318-3731~2
광명 : 광명시 하안로 254(하안동) T. 02-894-3731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청천동) T. 032-507-3731~2
부곡 : 의왕시 까치골1길 25 (서동) T. 031-462-3731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 031-716-3743, 716-7832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2길 5 T. 02-2632-3731
산본 :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 031-395-8227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 032-469-3742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 032-652-3731~2

-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중산동) T. 031-906-3731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 031-497-3732
영동 : 수원시 영통구 영동로 418 (영동동) T. 031-205-3732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 (인창동) T. 031-567-3731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 031-422-9200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 031-298-3739
전원(수양관,본관) T. 031-227-5992-3, 227-3739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정기동) T. 031-985-3731~2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 031-662-3731
인중 : 평택시 인중읍 송달1로 144 T. 031-684-3731
천안 :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 041-555-3731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 063-225-3731
양주 : 양주시 평회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 031-863-3731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편부면 오성마을길 30 T. 033-764-3735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명로 220 (우서동) T. 02-459-3731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 39-11 (관동동) T. 055-312-3731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 031-337-0688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 (운서동) T. 032-751-3731

-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충남로41번길30 T. 042-471-3736
광주 :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미류들길 168 T. 031-763-3720
남양 : 화성시 시창로102번길 56 (남양리) T. 031-355-3729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 053-522-3731
서산 : 충남 서산시 우석로 11 (석림동) T. 041-667-3731
울진 : 수원시 정안구 하롤로 55 (천천동) T. 031-271-3731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 031-8015-3731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재운동) T. 041-353-3731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 (보람동) T. 044-862-3732
전주(호재)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 063-239-1004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2572 T. 033-463-1312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 46-5 (황성동) T. 054-772-7867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39번길 21-18 T. 041-534-3731~2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름1길 36 (충신동) T. 043-848-3731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 031-662-3731
산서 : 전북 전주군 산서면 성계로2 (쌍계리) T. 063-351-7518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 055-752-6675
은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 041-533-3731

은혜와 진리소식

2023년 6월 4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회랑로 303 ☎ (031)486-3731



제 1829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저에게 귀한 재능과 믿음을 주시고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조은진 -

할렐루야! 저는 안산성전 교회학교에서 봉사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모님이 독실한 신앙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은혜와진리교회를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게 해주셨습니다. 저를 위해서 저의 가족과 또 교회의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저의 믿음이 자라고 오늘 말씀과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노래 부르고 피아노 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초등부에 다닐 때부터 성가대에서 봉사하였습니다. 특히 피아노 연주하는 것을 좋아해서 고등학교 때 피아노 연주를 전공으로 바꾼 후 고등부 성가대에서 피아노 반주자로 봉사하였습니다. 이처럼 일찍이 교회를 다니고 교회학교에서 봉사하였지만 저의 믿음은 오랫동안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성경 지식이 많이 부족하였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신령한 체험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얼른 대화의 주제를 바꾸곤 하였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슬피 때도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대학입시를 준비하던 중에 꼭 들어가서 다니고 싶은 학교가 생겨서 진술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학교에 정말 가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그만큼 실력이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 1차만이라도 꼭 붙게 해주세요. 최종 합격까지는 바라지 않을게요!” 지금 생각하면 절로 웃음이 나오는 이런 제목으로 처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 후 치른 실기시험에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실망을 하고 기대감이 없이 1차 합격자 명단을 확인했는데, 그 명단에 또렷하게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도와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경외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했던 대로 1차 시험에는 합격했지만 부득이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수 생활을 하던 어느 날 새벽,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말씀드리기가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제 입으로 차마 말을 못하겠어요. 죄송해요.” 하고는, 마음속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말야! 두려워 말고, 망설이지 말고 다 내게 말해 보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한 기이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순간 너무 놀라서 얼굴이 화끈해지고 온몸

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무엇이 죄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던 제가 눈물을 흘리며 신앙생활, 가정생활, 학교생활 등 여러 가지 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드린 것이 지금도 무척 신기합니다.

20살 때부터 초등부에서 성가대를 지도하면서 피아노 반주 봉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학생이 된 후로 한동안 교회보다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살았습니다. 주일은 일주일에 한 번 ‘피아노로 봉사하는 날’이란 생각으로 교회에 갔습니다. 예배시간에 자주 출고 감사기도회에도 불참하였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신령한 행복감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의 일을 하듯이 교회에서 일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교회를 떠나지는 못하고 ‘평일에는 세상, 주일에는 교회’ 이러한 생활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집과 먼 타지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직장 상사에게 그만 사기를 당하고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무척 믿고 따랐던 상사였기에 마음에 상처가 너무나 컸습니다. 서럽고 분해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복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마음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머니와 동생이 저를 위로하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주중에도 교회에 가서 예배에 참석하여 설교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주중에 당회장 목사님을 뵈고 목사님께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축복기도를 받았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평안하여졌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감화시켜 주셔서 더 이상 그 일에 집착하지 않고 인생에 교훈이 되는 귀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게 되어 훌훌 털어버렸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주중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면서 당회장 목사님의 설교말씀을 듣고 크고 많은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너무나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참석하지 않던 청년 모임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만큼 저의 믿음이 자랐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본던 중에 들어가 일하고 싶은 회사가 생겨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설리해 주셔서 소원을 이루어 받았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기독교인이었고 수요마다 직일예배를 드리는 회사여서 처음에는 즐겁게 직장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출근과 퇴근 시간이 여느 직장과는 달라서 우리 교회의 주중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말씀의 은혜에 갈급하여지고 영적으로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점차 신앙생활이 퇴보하였습니다. 봉사를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아니라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행하고 몸이 피곤하다는 핑계로 청년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때가 많아졌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고 오랜만에 청년모임에 나갔을 때, 기도회에서 담당 교역자님이 “예배의 사모함”에 대하여 설교하셨습니다. 이어서 함께 기도하는데, 회사에 들어가기 전 주중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여 당회장 목사님의 설교말씀에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던 그 시간들이 몹시 그리워졌습니다. 성령님께서 제가 각성하고 예배와 말씀의 은혜

를 간절히 사모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당시 다니던 회사가 저의 전공인 피아노 연주와 관련된 회사였고 또 그 안에서 제가 나름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에 섣불리 회사를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기도할수록 더욱 주중예배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결단하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주중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의 은혜를 부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 직장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피아노를 치고 피아노 연주와 관련된 일만 해왔습니다. 그런데 피아노와 관련된 직종으로 주중예배에 빠지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의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렇다고 전공과 다른 새로운 분야의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도 염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주중예배에 다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전에 다니던 회사와 비슷한 일을 하는 곳이 있는지 알아볼까?’ 하고 잠깐 타협하려는 마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달달트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만 사용해야겠다는 마음을 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교회학교 성가대 반주 봉사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만을 생각하며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GNTC 인형극단의 음악팀장 직분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직장 문제로 금식기도를 결심하고 하루 한 끼 금식도 어려워했던 제가 21일 동안 매일 저녁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를 하는 동안 하나님 면전의식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면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후에는 취업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마음이 너무 평안해서 문득 ‘내가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걱정을 안 하고 노력도 달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요예배에서 당회장 목사님께서 설교말씀 중에 기도하는 성도의 마음에 임하는 주님의 평안에 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하나님의 응답을 더욱 기대하였습니다.

그 후로 저 개인을 위한 기도보다 교회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직분 감당과 신앙생활의 향상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새 직장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앙망하여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제가 바라던 대로 큰 회사에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성도의 간절히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실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복음전파를 위한 새로운 소원과 열정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함께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맡겨주신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려고 합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자주 넘어지고 흔들리곤 했던 저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예배중심, 말씀중심, 하나님중심의 복된 삶을 살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와 함께해주시고 저의 앞길을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와 진리교회 조용목 목사

구역예배

- 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32절
- 찬송: 찬송가 317장(새찬송가 527장)

“탕자를 사랑으로 맞이하는 아버지”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는 하나님 아버지와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달리 해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의 행동은 인간의 타락이 무엇인가를 말해 줍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내가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유혹하기를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한다고 단정한 다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하였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말에 솔깃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면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극의 수렁으로 발을 들어 밀려 되고 말았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위치에 서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불행을 스스로 초래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인간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도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다시 번성하기 시작하였을 때 사람들이 동방으로 이주하다가 시날 땅에서 평원을 발견하고 “자, 우리가 성과 탑을 건축하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흠여지지 않도록 하자.” 하였습니 다.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말한 것을 보면 엄청난 높이의 성과 탑을 지으려고 시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탑은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성과 탑을 쌓는 것을 중도에 좌절시 키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온 지면에 흠여졌습니다. 만일 크고 높은 건물을 짓는 그 자체가 죄악 이라고 한다면 오늘날의 고층 빌딩은 다 죄악의 산물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흠여 버 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날 평지에 성과 탑을 쌓던 무리들은, 흠여져 땅에 편만하여 그 가운데서 번성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거역하기 위해 성과 탑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흠여짐을 면하자.”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의식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자 하였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이르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배반과 반역입니다. 이것은 교만의 극치입니다. 사람의 의식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중심으로 하나 되고 인간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같은 교만한 정신과 욕망은 인간이 가진 고질적 병폐입니다. 문명의 발전과 급속한 과학의 진보는 이러한 인간 정신에 자신감과 오만함을 더하여 주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의 예언대로 세상의 정치, 경제, 종교는 단일화를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의 정부, 하나의 경제, 하나의 종교 라는 바벨탑을 쌓기 위해 벽들을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세의 현저한 징조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실상은 아버지를 떠나간 탕자의 모습과 같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는 한 동안 그가 얻은 자유를 만끽하였습니다. 돈이 없으니 친구들이 물려주었습니다. 즐길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허랑방탕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속적 유희와 환락은 가진 것을 신속하게 탕진시킵니다. 얼마 가지 못하여 탕자는 가진

것이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친구들은 모두 떠나가 버렸습니다. 지금 와서 그들을 원리 해 본들 부질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어리석고 무절제했음을 한탄해 본들 사태를 돌이킬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탕자는 아버지를 생각하기보다 다른 의지할 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하여 그 지방에 사는 어떤 사람의 집에 가서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습니다. 그는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데서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멸시하고 아버지를 떠나 멀리 갔더니 그 종착지가 돼지 우리였으며,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탐하는 데까지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돼지 치는 일이라도 얻었으니 천만다행으로 여겼지만 돼지만도 못한 대우를 받게 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굶주린 창자를 조금이라도 채워보려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먹으려 했으나 그것도 여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그것을 먹지 못하도록 단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생의 결국은 동물적인 삶으로의 전락입니다. 인생의 근원도 이유도 목적도 알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기약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짐승이나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둘째, 탕자비유는 절망에 처한 죄인에게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굶주림과 고독 가운데 처한 탕자에게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놀라운 생각을 하게 되었고 비로소 정신 차린 말을 하였습니다. 스스로 돌아켜 말하기를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넘쳐 나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말씀드리기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저를 아버지의 품꾼들 중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해야겠다.” 하였습니다. “스스로 돌아켜”라는 말은 “자신에게로 돌아오다.”라는 뜻으로 정신을 제대로 차린 것을 말합니다. 한 동안은 마냥 재미있었고 그 재산을 다 허비한 후에도 그는 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공평을 해결할 자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막연하나마 어찌 되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들에서 돼지 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도 여전히 각성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배불리 먹을 수 없게 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제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고 벽에 부딪힐 때까지는 정신을 돌이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고난은 인간을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두 가지 사실이 분명하게 깨달아졌습니다. 먼저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풍부해서 품꾼들까지 양식이 넉넉하도록 조치해 주신다는 사실을 회상하였습니다. 실로 하나님 아버지는 풍부하십니다. 시편 103편 8절에 “여호와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였습니다. 로마서 10장에는 “성경에 이르시도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롬 10:11-13)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요 14:1,2)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탕자는 “나는 여기서 주러 죽는구나.” 하였습니다. 공평과 고독 속에 처한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여기서 주러 죽겠다.”하는 두려움이 엄습하였습니다. 두려움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두려움은 유익한 수렁입니다. 탕자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라고 스스로 다짐하였습니다. 탕자는 낙담과 자포자기를 딛고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전날에는 교만하게 자기 몫을 요구했으나 이제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생각하여 가장 낮은 자리를 구하며 아버지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드디어 탕자는 그의 결심을 행동에 옮겼습니다.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세상에서 사람이 보여 주는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참된 회개란 마음의 변화에 따른 행동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인생에게 있어서 누구에게나 반드시 있어야 할 결단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직도 결단하지 못하고 심사숙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망설이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지금 곧 결단하십시오. 누가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삶과 죽음 사이는 단 한 발자국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옥은 죽음과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지금 결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무슨 자격을 갖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탕자가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 목욕을 하거나, 옷을 빨거나, 너털너털한 옷을 걸거나 하지 아니했습니다. 탕자는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그에게 요구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죄 있는 그대로, 죽난 그대로, 상처 입은 심령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오시면 됩니다.

셋째, 탕자비유는 죄인을 영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득한 아버지의 눈은 탕자의 눈보다 더 멀리, 그리고 완전하게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같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동구 밖에서 먼 곳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아직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대번에 탕자를 알아보았습니다. 본문에는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겼습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피골이 상절하여 비실거리며 걸어오는 아들을 보고 미운 생각보다 측은한 마음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기억하는 죄인을 향한 진노는 더디 하시고, 회개하는 죄인을 향한 은혜는 속히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죄를 고백하려고 하는 입술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입술이 먼저 닿았습니다. 아버지의 입맞춤은 돌아온 탕자에게 많은 것을 한꺼번에 느끼게 하여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용납하셨음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아들로 받아주심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크게 기뻐하고 있음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입맞춤에서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을 깨달았지만, 지난날의 잘못을 고하고 감히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면목이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였습니다. 그가 고백하려고 작심한 말 중에 미처 말하지 못한 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나를 품꾼들 중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라는 말

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더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아들이 돌아온 것으로 회개의 뜻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백한 내용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더 이상 말하기 전에 큰 소리로 종들을 불러 지시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이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나님 아버지는 회개하는 죄인을 이처럼 기쁘게 맞이하고 주시고 용서하시며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베풀어 주십니다.

선교 초창기에는 전국 각처를 다니며 성경을 배부하거나 팔면서 전도 활동을 하는 ‘권서인’이 있었으며 남편은 성실하지만 성격이 괴팍하여 술을 먹으면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러니 부부간에 불화상태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 날 저녁에도 남편이 만취상태로 집으로 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없던 책이 있는 것을 보고 어디서 생겼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대답을 듣자 요긴한 돈으로 쓸데없는 책을 샀다고 몹시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대꾸하기를 재산 중에 적어도 절반은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남편은 화를 내며 응수하기를 “좋아, 그렇다면 절반은 내 것이니까 이 책의 절반도 내 것이야.”라고 말하며 신약성경의 절반을 찢어 주머니에 쑤셔 넣고 집을 나갔습니다.

휴식시간에 그는 문득 주머니에 책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꺼내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대충 넘기고 보다가 누가복음 15장에 이르러 탕자 비유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분배 받아 먼 나라로 가서 탕진한 후에 호구지책으로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마음을 고쳐먹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내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반쪽 책의 마지막 페이지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까지만 있었습니 다. 아직 이야기가 끝이 난 것은 아닌 듯한데 그 다음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어떻게 대할 것이며 그 아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에게 비웃음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아내에게 나머지 반쪽의 책을 달라고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의 아내도 역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찢어가고 남은 부분의 첫 장면인데 방탕한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사랑스럽게 맞이하는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어떻게 그 아들이 집에 떠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후에 그가 왜 돌아왔는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그 책의 앞부분을 달라고 하여 읽을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남편에게 거절당할 것 같아서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스트레스를 받고 싶은 생각을 억제하면서 며칠 보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탕자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났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남편에게 그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서로 반쪽 성경을 교환해 읽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은 성령에 의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이 탕자와 같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헛되게 낭비하여 왔다는 것과 세월이 갈수록 허망한 생각과 죄책감이 마음을 시들고 있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탕자와 같이 그들도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교회에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며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넷째, 아버지와 만아들의 대화 내용은 이제 막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분들을 향해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가짐과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아들은 종일 밭에서 일하고 저녁이 되어 돌아오는데 아버지의 집에서 풍류와 춤추는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한 종을 불러 “무슨 일인가?”하고 물었습니다. 종이 대답하기를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이를 기뻐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하였습니다. 만아들은 집 앞에 왔으나 노하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를 알게 된 아버지가 달려 나와서 어서 들어가자고 권했습니다. 만아들이 불멘소리로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 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였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작은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여 잔치를 배설한 것에 대해 불평불만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극도의 이기주의라고 편협한 마음입니다. 만아들은 아버지의 심정은 아랑곳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같은 이기심과 편협한 생각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구원 얻는데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감동과 기쁨도 없으며, 그들을 환영하는 데는 1분 1초도 아깝다고 여기는 태도로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만아들이 하는 말과 태도를 보니 탕자가 그의 형을 먼저 만나지 아니한 것이 천만 다행입니다. 만일 탕자가 그의 형을 먼저 만나 그 하는 말과 태도를 접했다면 도망가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탕자는 달려와서 그의 목을 안고 입맞추어 주시는 아버지를 먼저 만났던 것입니다. 만아들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극심한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있으면 인명구출 작전에 나서게 됩니다. 무너진 건물 더미 속에 갇힌 사람을 적극적으로 구조하는 현상이 실황 중계되기도 합니다. 텔레비전에 방영되는 이러한 인명 구조 활동 장면에 사람들은 관심을 집중하고 극적으로 구조되는 사람이 있을 때는 누구나 박수와 환호를 아끼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알지 못하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이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또 기뻐하고 환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자, 하나님을 떠났던 자가 돌아오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이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지옥으로 가던 자가 천국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기뻐합니다. 우리들 역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세 주일에 걸쳐 예수님이 연속하여 말씀하신 세 가지 비유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잃은 양을 찾는 목자 비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비유’에서 성령님을, ‘탕자를 사랑으로 맞이하는 아버지 비유’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죄인들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고 아버지의 사랑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을 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여 잃은 자,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자가 구원 얻는 것을 보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